

## 각북 · 전원 · 주택

### One Bed Room House

박종석 / 대상건축사사무소  
by Park Jong-Suk

#### 작업의 지침서 - "어느 건축물의 탄생"

**5월 10일, 현장에서**

맑고 쾌청한 오후, 경사지 위로 오토바  
이가 올라간다. 인접도로의 자동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사람들은 잔디밭 위에 누워 하루를 즐기고 있다

..... 중략 .....

주변을 산책해 본다. 작은 집들, 조용하  
고 단조로운 길, 뛰어노는 아이들, 비어있는 대지...

**5월 12일**

복잡한 프로그램, 이 꼬여진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5월 13일**

정신세계의 산책. 길을 걸어서 대지에  
다다를 때까지 머리속에 그려지는 공간, 이미지들, 곡  
선, 오르막과 내리막 ... 중략.

**5월 19일**

"내부공간 내부의 길"에 대한 아이디어  
가 뚜렷해지기 시작한다. 한쪽방향으로 좋은 전망을 가  
진 높은 길, 즉 열려있고 빛이 많이 들어오는, 넓어졌다

좁아졌다하면서 내부광장으로 향하는, 작은 정원을 따  
라가는 길... 중략.

**5월 22일**

입구측에서 보이는 파사드를 얹은 건물,  
길에서 다른 길로 걸어가듯 자연스럽게 회랑속으로 들  
어가... , 절대 위엄있고 웅장한 건물은 피해야 한다...  
중략.

**6월 9일**

일관성 있는 전체 덩어리... 단면, 대지  
단면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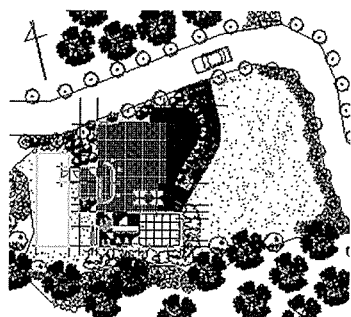
**6월 18일**

모형작업, 아주 작게 만드는 모형작업  
(1/1000)은 일을 쉽고 빠르게 이끌어 준다. 형태... 중  
략.

**10월 18일**

지금까지의 Note들을 정리하자. 작업  
하는 동안 꾸준히 기록해 온 작품Note들도 결국 이 번  
Project의 가장 중요한 것-가슴 속에 담겨 있던 가장 중  
요한 것-에 대해서는 나타내지 못하였지만...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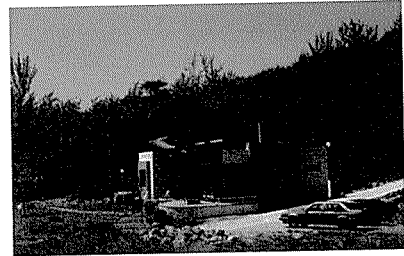
**10월 19일**



배치도



스케치



... 이제 작품 Note하는 작업을 마쳐야겠다.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간을 통해 변화된 나를 스스로 느끼며 이제 5월의 그 대지 위로 다시 돌아가 희망을 거닐고 정원을 바라보며, 태어날 공간속의 움직임을 맞볼 수 있겠다.

Pierre Riboulet가 Robert-Debre소아병원설계를 위하여 자신의 고민과 발전과정을 이렇게 일기로 기록한 것처럼, 주택설계를 위해 나 자신의 작업에서도 하나의 건축공간이 서서히 부드럽게 탄생할 수 있도록 Note하는 흥내)를 열심히 내어본, 자신도 알아보기 어렵게 갈겨쓰고, 때로는 운전중에 생각나는 대로 아무데나 적고 그려놓은, 그래서 어찌면 정리안된 "상념의 편린" 들을 모으다 보니 자연스레 이뤄진 그런 작품이었다.

### 건축주의 요구 - 건축가의 변

"40~50평정도의 단층건물을 원합니다. 그 외에는 전문가가 알아서 하세요. 믿고 모두 맡깁니다."가 대구에서 사업을 하시던 멋쟁이 최사장님부부 요구의 전부였고, 다음으로 함께 결정한 사항은 적당한 크기의 침실(한실) 하나와 나머지 면적은 전부 넓고 시원한(30평이 넘는) 거실로 한 것처럼 처음부터 완공될 때까지 또 그 이후까지 일관되게 믿음을 바탕으로 Project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하나의 건축물이 태어나서 주변과 함께 살아가기까지의 몫과 의무가 우리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건축주, 시공자, 건축가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소박한 건축물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눠보려 한다.

### 시공자

대구시내에서 삼, 사십분 거리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전원주택을 지어볼 수 있는 즐거움에, 내 집처럼 짓겠다는 정성을 다하고 싶었다.

가창담과 산허리를 끼고 들면 수자원보호 지역이므로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곳을 지나 산 정상을 넘어가면 각북전원주택으로 한창 개발붐을 타고 투기가 성행하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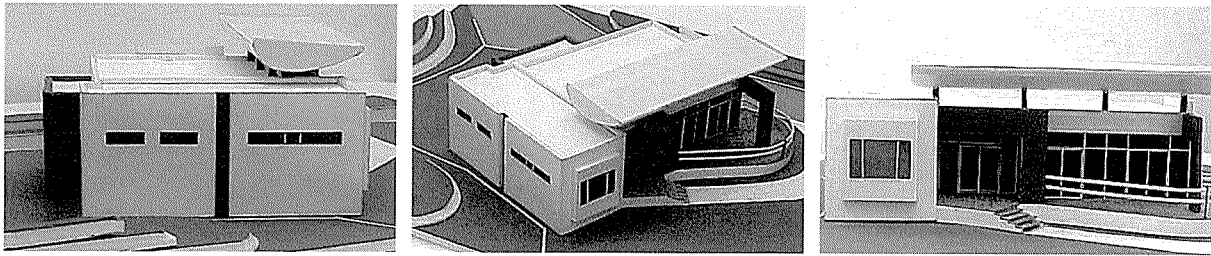
이곳저곳에 자태를 뽐내며 하나, 둘 서있는 건물은 내 욕심에 차지 않는다.

건축가의 까다로움은 다른 현장에서 이미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경험한 바 있는데 예를 들면,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은 사선으로 시공하는 외부석공사의 모서리부분 마무리공사와 사선으로 요철되게 처리하는 철근 콘크리트공사 중 마지막 층에서 콘크리트타설중에 거푸집이 터져 옆 공장지붕에 흘러내려 밤새도록 처리하고 날이 새면서 다시 마무리 처리작업을 마친 기억들이 생생하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즐기는 시공자 입장에서 각북전원주택은 또 다른 섬세함과 화려함이 있다.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철골조의 건축물로써, 거실부분의 철골과 데크플레이트의 노출처리가 이색적이며, 건축주의 취향에 맞추어 색상 선택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다. 여러 색상을 모형에서 작업을 한 결과 흰색과 자주색의 조화가 화려함을 더 한 것 같았다.

공사 진행시 건축주의 지상함과 열정속에 바닥재, 벽난로 도기, 타일 등의 자재 구매를 건축주와 직접 구매하여 공사하는 즐거움도 함께 했다. 지금도 바쁘지 않은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울챙이와 개구리를 잡으면서 쌓았던 피로를 풀곤한다. <변영일>



## 건축주

경북 청도군 각북면에 이사와서 생활하며 맞는 세 번째 초록의 계절이다. 평소 그렇게도 꿈 꾸어오던 전원의 삶이 조금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평범한 진리와 맞물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온한 것이어서 그럴 것이다.

고향이 서울인 아내도 입버릇처럼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이 많아서 이런 좋은 곳에서 생활할까” 하는 얘기를 2년여가 지난 지금도 가끔씩 떠올리는 걸 보면 한계효 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이곳 각북의 전원생활 인가 보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직업관 즉 자기부모를 낮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진료하는 의사, 항상 정의의 편에서서 공정하게 판결하는 법관, 자기가 살 집을 짓는다는 정성으로 설계하고 건축을 하는 건축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으로 제조 가공하는 식료품업자 등. 우리주변에는 많은 직종의 직업에 종사하지만 과연 그렇게 정직하고 노력하는 투철한 직업관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언젠가 각북면사무소에서 직원들과 얘기 중에 올해로 이사와서 세 번째인데 다가오는 어린이날에 우리 집을 지은 건축사와 시공업자가 자녀들과 함께 놀러오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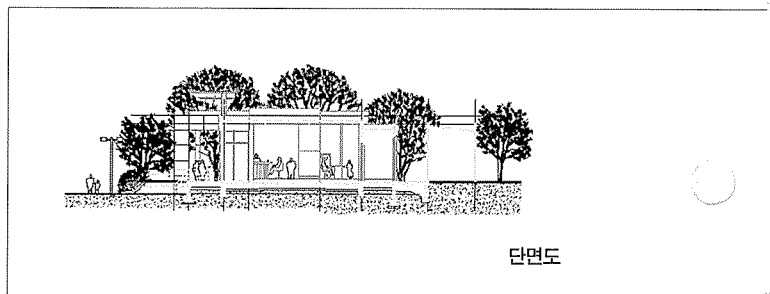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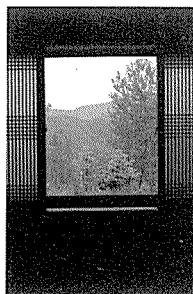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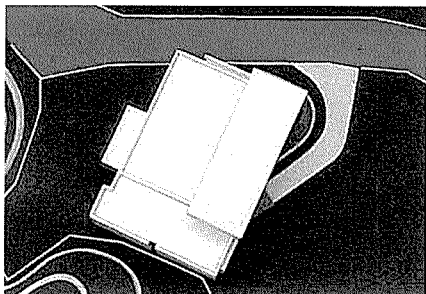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을 끝내고 나면 사이가 소원해져서 거의 왕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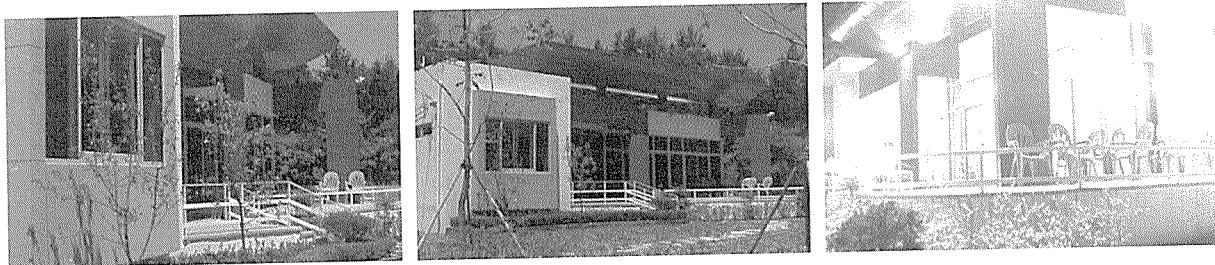
단 한 번의 만남도 인연인데 이렇게 소중한 일을 해놓고 그럴 수 있느냐니까 요즘엔 비정상이 많아 어느게 정상인지 모를 정도란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제 아내가 얘기하듯이 정말 운이 좋게도 성실하고 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건축가를 만났다.

게다가 십수년동안 예술과 패션의 도시 파리에서 건축학을 공부한 건축가를 만난 것은 건축의 ‘건’ 자도 모르는 나로서는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건축주보다 더한 애정과 집념을 가지고 이루어 놓은 작품이기에 건축주인 나 자신이 뭘하나 고치고 싶어도 건축가의 의도와 어긋나지 않을까 해서 먼저 상의를 할 정도였다.

제 소유이긴 하지만 뛰어난 감각과 지극한 정성을 기울인 한 건축가의 심혈을 기울인 작품속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하니 그러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물자리를 봐주기 위해 왕림하신 우리나라 수맥과 풍수의 대가이신 임응승 퇴임신부님께서도 이렇게 편안한 자리가 다 있구나 하셨다.

뒤에 큰 산을 지고 있고, 바로 옆엔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시내가 흐르고, 이 주변의 가장 큰 봉우리가 마주하고 있다. 말로만 들던 배산임수가 바로 여기





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자연환경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칭 환경보호론자인 본인이 곧잘 부르짖지만 자연은 우리 인간이 가꾸고 지킬 때 보답하는 것이다. 지구의 자정능력 또한 한계가 있다. 인구가 늘고 생활이 윤택해질수록 분의 일로 버리고 비례해서 아껴야 한다 이런 소중한 환경을 우리만 향유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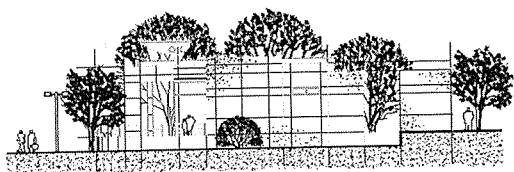
우리 집엔 외국인을 비롯해 손님들이 많이 오는 편이다. 심지어 건축사인 프랑스친구들은 여기가 자기들의 고향인 “노르망디” 보다도 낫다고 할 정도다. 제 친구 중에는 이런 좋은 곳을 너희만 알고 지내지 말고 찾집이라도 열어 많은 분들과 공유하라고 충고삼아 말하는 친구도 있다.

오는 사람 모두가 하나같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한다. 정말 이런 생활을 가지도록 해주신 누군가 큰 분에게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도 갈바가 드리워진 테라스에서 아무런 사념없이 땅거미가 서린 산과 들을 바라보고 있다. <최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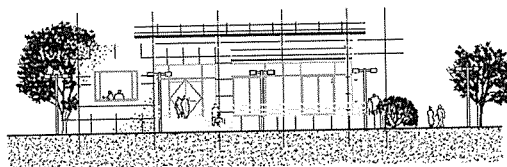
## 에필로그(Epilogue)

테오도르 루소(Theodore Rousseau)가 하루를 지내려왔던 바르비종이 너무 좋아 평생을 자연과 더불어 살아버린 것처럼, 주말별장으로 사용하려던 이 곳이 최사장님부부의 주주거가 되어 버렸고, 살던 APT에는 한 달에 한두번 들러볼 정도로 이곳 각북(지역) · 전원(환경 · 조건) · 주택(용도 · 방식)에서의 생활에 만족을 느끼기에 건축가로서 가장 큰 보람을 가진다.

하지만 비가 오면 아직도 철골과 유리 이음 부분에 물새는 곳이 있고, 외벽의 흰색드라이비트 마감 사용에 대한 경험부족 때문에 예상밖으로 빨리 더러워지는 것, 너무 많은 외부조명등 설치와 보안에 무심한 설계, 빠르게 변색해 버리는 데크바닥재의 선택 등의 미숙함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와 시공자의 격려는 비단 이 주택과 설계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축에 대한 사랑을 더불어 나누는 모든 관련인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측입면도



정면도